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이 진 명(李鎭明)

(프랑스 국립 리용 3대학 교수)



글 쓴 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월 13일의 일이다. 이 날은 아그노에르 교수의 초빙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이옥(李玉)현 파리 7대학 교수(한국학과장)(이하 존칭은 생략함.)가 파리 대학교 문과 대학인 소르본느(Sorbonne)에서 첫 한국어 강의를 한 날이다. 그로부터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다섯 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중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파리 7대학, 동양어 대학, 리용 3대학의 세 곳이며, 7대학과 동양어 대학에는 교양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리용 3대학에는 아직은 한국어 전공 교양과정(1~2학년)밖에 없다. 그 외에 보르도 3대학과 르아브르 대학에는 한국어 강좌가 있다.

한국학과가 있는 세 대학에서는 언어(langue coréenne, le coréen) 교육이 주를 이루지만 역사, 지리, 문학, 예술,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등을 포함하는 문화(civilisation coréenne) 강의도 실시한다.

이 다섯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한국학(넓은 의미의 études coréennes, 좁은 의미의 coréanologie)을 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교수진은 프랑스인 일곱 명과 한국인 열세 명, 모두 20여 명에 달한다.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coréanologue)들은 <유럽 한국 학회(AK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 수는 해마다 다소의 변동이 있으나 교양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만도 3개 대학에 모두 200여 명에 달한다.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한국학으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랑스 학생들이다.

30여 년 전의 절대 빈곤의 나라가 그 동안 세계에서 그 유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 국력을 신장하여, 오늘날 한국은 세계 제 15위의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외국인들의 한국에 관한 관심도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어느 정도 평행하여 외국에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력도 신장되었으며, 프랑스에서의 그간의 한국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발전도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프랑스에 있어서 이 같은 제도가 있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파리 7 대학(Université Paris 7)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샤를 아그노에르(Charles Haguener, 1896~1976)이다. 그는 동양어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한 다음 1924년 프랑스 정부가 일본 도쿄에 건립한 日佛會館의 최초의 장학생이 되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고대사와 언어를 연구하면서, 프랑스 사람으로는 혼자서 한국의 것도 연구하여, 한국에 관하여 14편의 논문을 남겼다. 그는 1932년 파리로 돌아와 동양어 대학에서 강의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제 2 차대전 종전 얼마 후인 1955년에는, 동양어 대학 외에, 파리 대학교 문과 대학(소르본느)에도 <일본학과>가 설치되어 아그노에르 교수가 과장이 되었다. 그 해 일본학과의 교수진은 아그노에르와 일본어 강사 모리아리마사(參有正, 파스칼 전문가이며, 일본의 유명한 수필가)뿐이었다.

첫 학년도 개강 몇 달 후에 아그노에르 과장의 초빙으로 연세대학에 조교로 있던李玉이 프랑스에 건너와 1956년 1월 13일부터 소르본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아그노에르 교수의 총고로 첫 한국어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네 명이었는데, 그들은 현 동양어 대학 교수 앙드레 파브르(André Fabre), 칼라롬푸르 주재 프랑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장 페랭(Jean Perrin), 은행 간부로 지금은 은퇴한 장 에스맹(Jean Esmain), 현재 일본의 텔레비전 스타인 프랑소아즈 모레상(Françoise Morechand) 등이었다.

이 학과는 1959년에 <일본-한국학과>로 명칭을 바꾸었고, 한국어는 학

사 학위(Licence)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4개의 필수 과목(certificat) 중의 하나로 대학의 정식 교과 과정에 올랐으며, 이윽이 전임 강사가 됨으로써 제도적인 토대가 완비되었다. 이로써 한국어는 파리 대학교 문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17번째의 외국어가 되었다. 1962년에 앙드레 파브르가 최초로 이 학위를 받았다. 당시에는 같은 교수진이 동양어 대학에서도 강의했고, 학생들은 동양어 대학에서 3년 과정을 마친 후 소르본느에 와서 학사 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었다. 1964년에 일본어 전임 강사 한 명이 추가된 외에는 1970년 학제 개편 시까지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8년 대규모의 학생 시위가 있었고, 대학생 인구의 급증으로 기존 시설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대폭적인 대학 학제 개편이 단행되었다. 그 때 존속하던 대학교의 단과 대학들이 각기 독립하여, 핵을 이루어, 이를 중심으로 종합대학화의 길을 걸었고, 동시에 많은 대학이 신설되어 파리에 하나뿐이던 대학이 1대학부터 12대학까지 열들로 늘어났으며, 지방 대도시의 대학은 대개 하나에서 셋으로 증가했다.

학제 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소르본느의 <일본-한국학과>는 1970년에 <일본학과>와 <한국학과>로 분할, 독립하여, <중국학과> 및 <월남학과>와 함께 신설된 파리 7대학에 소속하게 되었다. 7대학 내의 이 네 학과는 프랑스 대학의 구성 단위인 UFR(Unité de Formation et de Recherche, 교육-연구 단위-학부 또는 단과 대학에 해당하며 전에는 UER 라 하였음.)를 구성하고 있다.

파리 7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는 70년대초에는 이윽 과장을 중심으로 강사 2,3명이었다. 프랑스인 강사들말고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명의 한국인 강사(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었거나 교환 교수로 온 한국의 대학 교수들)가 번갈아 가며 1~2년 간씩 강의를 맡아 왔는데 이들은 지금 모두 한국의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의 교수진은 정교수 이윽(한국 교대사), 그리고 1984년부터 전임 강사로 있던 마르틴 프로스트(Martine Prost, 언어학)와 82년부터 전임 강사로 있던 崔勝彦(언어학)이 1988년에 동시에 부교수로 임명되었고, 이들 외에 전임 강사 2명(이연행, 심재중), 강사 6명[국립 학술 연구원 소속 연구원 다니엘 부셰(Daniel Bouchez), 알렉상드르 기유모즈(Alexandre Guillemoz), 마르크 오랑주(Marc Orange), 리용 3대학 부교수 李鎭明, 국립 사회과학 대학원 부교수 베르트랑 정(성배)(Bertrand Chung), 외환은행 파리 지점 근무 조르주 지젤메이에르(Georges Ziegelmeyer)]이다.

교과 과정은 1970년부터 교양 과정(DEUG, 1~2학년), 학사(Licence, 3학년), 석사(Maîtrise, 4학년), 박사(Doctorat) 과정까지이고, 전과정의 학생 수는 해마다 다소의 변동이 있으나,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의 20~30명에서 최근에는 1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여 명이 한국학으로 박사 학위를 마쳤다. 한국학과는 상당히 규모가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서의 수는 20,000여 권에 달한다.

2. 동양어 대학(INALCO,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동양어 대학은 196년의 긴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학교다. 프랑스 혁명의 와중인 1795년에 외교관, 통역관 및 동양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럽에서의 동양어 교육의 요람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동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했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의 유럽 언어를 제외한 전세계의 말을 가르친다. 현재 동양어 대학에서 가르치는 언어의 수는 자그만치 95개에 달하며,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한국어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희소(稀少)한 언어들로서 수강생이 한둘인 강의가 허다하고, 따라서 학생 수보다 선생 수가 더 많을 수가 있지만, 하나라도 수강생이 있으면, 그 강의는 계속 유지되며, 이 원칙은 어느 대학에나 적용된다. 이것이 프랑스 대학 교육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이 학교에서는 佛-中 友好通商條約이 체결되기 전체인 1843년부터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일본어 강의는 1864년에 시작하여, 1868년에는 정교수를 둔 일본어 학과로 승격했다.

한국어 강좌는 1959년에 설치되어 파리 대학 전임 강사李玉이 강의를 맡았다. 이로써 한국어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42번째 언어가 되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개 두 개의 동양어를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기서 한국어를 3년 배운 다음 소르본느의 학사 과정(3학년)에 등록하여 학위를 마쳤다. 당시 한국어 강의 수강생은 한 학년에 3,4명이었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10명에서 20명 내외였다.

동양어 대학은 대학 학제 개편 시인 1969년에 파리 3대학교에 소속되었고, 파리 6區의 릴街(rue de Lille)의 본부 건물이 협소하여 대부분의 학과는 그 해에 전에 NATO 본부였던 현재의 도핀느(Dauphine) 건물로 이

전하였다. 동 대학은 1985년에 파리 3대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단일 대학으로 되었다, 여기에 있던 한국어 과정은 1969년에 한국-일본학부 내의 <한국학과>로 되었고, 이 때 앙드레 파브르(André Fabre, 언어학) 교수가 한국-일본학부의 부장(1989년까지) 겸 한국학과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파브르는 프랑스 사람으로는 최초로 1962년에 소르본느에서 한국어 학위를 받았다. 교수진은 197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정교수 앙드레 파브르(André Fabre) 외에 전임 강사 2명(李炳珠, 언어학: 沈勝子, 언어학)이며, 1990년에 전임 강사 1명(조항덕)과 강사 2명이 추가되었다.

교과 과정은 교양 과정에서 박사 과정까지이고, 한국어과 학생 총수는 100여 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한 명이 한국 관계(언어학)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3. 리용 3대학(Université Jean Moulin-Lyon 3)

리용 대학이라면, 또 프랑스에서의 한국학이라면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을 잊을 수 없다. 쿠랑은 <朝鮮書誌>(Bibliographie coréenne, 전 3권, 1894~96 및 증보 제 4권, 1901)를 써서 한국의 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분이다. 그의 <조선서지>는 '불후의 명저' 또는 '한국서지학의 금자탑'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1890~92년 서울의 주한 프랑스 공사관에 통역으로 일한 바 있으며,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중국, 일본, 한국 도서를 정리했으며, 동양어대학의 중국어 또는 일본어 교수 자리를 기다리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0년 지방 대학인 리용 대학 교수에 임명되어 중국어, 중국 문화를 강의하면서 한국의 것도 가르쳤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조선서지> 외에 50여 편의 논문과 글을 썼는데 몇 편을 제외고는 모두 한국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들은 쿠랑을 프랑스의 한국학 선구자로 치고 있다. 그는 1935년에 쓸쓸하게 타계할 때까지 리용 대학 교수로 재직했는데, 그 뒤에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한 아그노에르가 1920년대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교류가 없었던 듯하다. 쿠랑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리용 대학의 중국어 교육은 계속되었으나 한국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리용 3대학 본관 계단의

빅면에는 쿠랑의 흉상 조각이 있다.

오늘날에 와서, 지방대학으로는 최초로 1983년에 리옹(Lyon) 3대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택한 학생들과 일반인으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은 1, 2학년은 각 학년 한국어 주 2시간, 3학년은 한국어 2시간에 문화 1시간이며, 이를 이수한 일반인에게는 대학 학위인 <한국어-문화 이수증(Brevet de langue et civilisation coréennes)>이 수여된다. 동 이수과정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모두 22개다. 개설 당시부터 파리에서 李鎭明이 강사로 출강했다.

한국어 강좌가 설치된 지 5년 후인 1988년에 교양 과정에 한국어 전공(DEUG de coréen, 프랑스 대학의 교양 과정 2년을 마치면 수여되는 국가 학위)이 설치되었다. 리옹 3대학교 외국어 대학에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0개 언어에 교양 과정(2년), 학사(1년) 및 석사(1년) 과정이 있다. 교양 과정 설치로 한국어 강의 시간 수는 첫해에는 4과목에 10시간, 그 다음해부터는 2학년이 생겼으므로, 20시간으로 늘었고, 그 밖에 위의 한국어 강좌는 그대로 계속되므로, 전부 주 27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전공 외에 교양 과목 4개, 계 6시간의 강의를 더 들어야 한다.

한국어 DEUG 설치와 더불어, 그 때까지 강사였던 李鎭明이 부교수로 임명되어(1988) 한국어를 책임맡고 있고, 그 해부터 한국인 강사 한 명(한창수), 1989년부터는 프랑스인 강사 1명(에르베 케르날레겐, Hervé Kernaleguen)과 한국인 강사 1명(유제호)이 이 더 추가되어, 현재 부교수 1명, 강사 3명이다.

학생 수는 모두 20여 명이며, 한 학년에 4~5명이다. 리옹은 파리에서 동남쪽(스위스 방향)으로 51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1979년부터 운행되는 고속전철(TGV)로 꼭 두 시간 거리의 파리 다음의 프랑스 제 2의 도시이지만 동양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 수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중국어나 일본어도 한 학년에 10명 내지 20명 정도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는 적어진다.

4. 보르도 3대학(Université Bordeaux 3)과 르 아브르 대학(Université du Havre)

한국어 강좌만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지방의 보르도(Bordeaux) 3대학

파 르 아브르(Le Havre) 3대학이다.

보르도 3 대학은 1986년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주 2시간, 3년 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 강사는 김보나(한정)이고, 파리에서 거리 600킬로미터인 보르도에 매주 출강한다. 파리-보르도간에는 현재 시속 300킬로미터의 대서양 고속 전철의 일부가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다. 수강생은 예상 외로 많아 1학년 50명, 2학년에 18명, 3학년에 12명이나 된다.

르 아브르대학(Le Havre)은 파리에서 150킬로미터 거리의 도버 해협에 連한 항구 도시 르 아브르에 있는데, 1989년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매 학년 주 4시간, 3년 간 실시되며, 수강생은 9명이고, 이들은 경제와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며, 동양어 대학 전임 강사 심승자가 출강하는 외에 한국인 강사 두 명이 더 있다.

5. 국립 학술 연구원(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순수 학술 연구기관인 <국립 학술 연구원(CNRS)>에서 한국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은 고전 문학 전문가이자, 모리스 쿠랑도 연구하였고, 1988~90 2년 간 파리 7대학 동양학부장을 지낸 바 있는 주임 연구원(대학 교수급) 다니엘 부세(Daniel Bouchez), 한국 무속 전문가인 연구원(대학 부교수급) 알렉상드르 기유모즈(Alexandre Guillemoz), 근대사 전공의 연구원 마르크 오랑주(Marc Orange)가 있고, 다른 연구원들도 부분적으로 한국을 연구한다. 이 세 한국 전문가들은 파리 7대학과 국립 사회과학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

국립 학술 연구원에는 1991년에 이육-다니엘 부세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학 연구팀(URA-D1474 Etudes coréennes)이 정식으로 발족됐다.

6. 기타 대학 교육 기관

<국립 응용 사회과학 대학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의 제 4학과(IVe Section)(역사 및 철학)에서 1970년까지 샤를 아그노에르(Charles Haguenauer)가 문화사를, 1970년부터 1977년까지는李玉이 한국 고대사를 강의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다니엘 부세(Daniel Bouchez)

가 한국 고전 문학과 문헌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 국립 학술 연구원 소속 언어학자 최석규는 1977년부터 구조언어학 강의를 하고 있다.

제 5 학과(Ve Section) (종교)에서는 1933년부터 1968년까지는 샤를 아그노에르가 한국과 일본의 종교에 대하여, 1968~70년은 하르트무트 로테르문트(Hartmut Rotermund)가 한국의 무속에 대하여, 1970~83년 사이에는 이육이 한국의 삼국 시대사를 강의했다.

〈국립 사회과학 대학원(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에는 1975년대부터 베르트랑 정(Bertrand Chung, 성배)이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1990년에 부교수에 임명되었고, 그 해부터 국립 학술 연구원의 알렉상드르 기유모즈(Alexandre Guillemoz)도 한국의 무속에 관해 강의하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 경제-사회 연구팀을 구성하고, 매년 학술 발표회(하루)도 개최한다.

7.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 소속 한국학 연구소(Centre d'Etudes Coréennes)

1959년에는 파리 대학교 내에 〈한국학 연구소〉(Centre d'Etudes Coréennes)가 설립되어 샤를 아그노에르(Charles Haguenauer)가 소장이 되었다. 설립 목적은 한국의 고대 및 현대 언어, 문학, 문화에 관한 연구, 프랑스에서의 한국에 관한 연구 논문의 발간, 한국 학자들의 연구업적의 프랑스 소개 등이다. 처음에는 이름뿐이었지 인원이 없었음은 물론이요 변변한 연구실 방 한 칸도 없었다. 그 후, 1967년에 파리 대학교 소속 동양 관계 연구소들이 뤼튼街 22번지 '동양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한국 연구소도 사무실과 도서실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학제 개편에 따라, 파리 대학교 소속 동양 연구소들은 1969년부터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교육 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 예속하게 되었다. 1970년 아그노에르가 은퇴하고李玉이 소장에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 연구소는 다른 동양 연구소들과 함께 1989년에 현재의 파리 5區의 카르디날 드 르모안느街 12번지로 이사했다. 이곳에 온 한국 연구소는 전보다 넓은 면적에 사무실과 5,000권의 한국 관계 도서를 보유한 도서실도 갖추고 있다. 이육 소장 외에 연구소의 일반 업무는 국립 학술 연구원의 마르크 오랑주(Marc Orange)가 맡고 있다. 동 연구소는 지금까지는 문집인 〈카이에르〉(Cahiers, 노트)와 단행본 규모의 연구업적을 실는 〈메

모아르) (Mémoires, 논문) 두 시리즈에 전부 12권의 한국학 관계 서적을 출판했고, 한국 전문가의 프랑스 초청, 한국 문학에 대한 학술대회도 개최하는 등 학술 활동을 한다.

대학교 및 연구기관 이외에 국립 중앙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동양어 대학 도서관, 동양 관계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도서관에는 한국 도서 담당 사서가 있으며, 서양 서적 및 한국 古書, 古地圖, 현대 서적을 각 도서관별로 3,000권에서 10,000여 권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한국학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들은 <유럽 한국 학회(AK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학회는 화란의 포스(Vos), 영국의 스킬런드(Skillend), 프랑스의李玉이 창립 위원이 되어 1976년에 설립되었다. 그 다음해에 제1회 유럽 한국학 대회를 가진 이래 1991년 프랑스의 두르당(Dourdan) 대회까지 학술대회를 15회 개최하였다. 프랑스 학자로 이욱, 다니엘 부세가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 회장 역시 프랑스의 앙드레 파브르이다. 이 대회는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가며 부활절 방학 때 열리는데, 서부 유럽은 물론 소련을 포함한 동부 유럽 학자들 및 다수의 한국 학자와, 3년 전부터는 북한의 학자들도 참가하여 자기의 연구 결과를 발표, 토론하고, 학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데 크게 공헌하며,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 1991년의 프랑스 두르당 대회에서는 영국 런던 대학의 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를 새 회장으로 뽑고, 다음부터는 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제16차 대회는 1993년에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다.

프랑스의 한국학 관계 대학과 학술 기관은 한국의 정부-민간 학술 기관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학술진흥재단이 이들 대학과 연구기관에 교육, 연구 활동 및 출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동 재단을 비롯하여 문화부, 국사편찬위원회, 정신 문화 연구원 등에서는 도서를 기증해 주며, 한국 문학에 관한 발표회가 있었을 때 문예진흥원의 후원도 있었다. 이들 기관은 또 프랑스의 학자들을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초청하거나, 한국에서의 현지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들은 자신의 강의와 연구 활동 외에 현지에서 있는 한국 관계 자료-문헌 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한국

연구에 이바지하며, 학술기관들은 한국의 학자들은 물론 동-서 구라파의 한국학 학자들도 파리에 초청하여,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며 강연이나 강의를 의뢰하는 등 학자와 학문의 교류도 도모한다.

8. 프랑스의 대학 제도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잠깐 프랑스의 교육 제도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겠다. 프랑스의 모든 대학은 국립이므로 정교수(professeur)와 부교수(maître de conférences, 영어로는 associated professor)는 국가 공무원이다. 대학은 평준(平準)하므로 대학간에 우열의 차이는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교 졸업 자격 고사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Bac.)'에 합격하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있는 자신의 Bac 과 동일한 계열의 어느 학과든지 입학할 수 있다. 프랑스는 특수하게 대학 이외에 입학정원제인 '그랑드 에콜(Grande Ecole, 대부분 국립)'이라는, 주로 엔지니어와 실무자를 양성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고교 졸업 자격 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이 고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랑드 에콜 준비반(이 과정은 대학 과정과 같음.)에서 1, 2년 집중적으로 전문분야를 공부한 다음,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서 2, 3년 실무를 배우게 된다.

대학의 학제는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 대학의 과정을 2년 단위의 주기(cycle)로 나누어 제 1주기인 1, 2 학년을 마치면 DEUG(Diplôme d'E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 교양 과정) 학위를, 제 2주기인 3, 4 학년 중 3 학년을 마치면 Licence(통상 학사 학위라 번역함), 4 학년을 마치면 Maîtrise(석사) 학위를 받으며, 그 다음이 박사 과정(Doctorat)인데, 그 첫해가 DEA(Diplôme d'Etudes Approfondies, 박사 학위 준비 과정)이다. 이들 학위는 모두 국가 학위이고, 어느 대학의 학위이든 동등하고 균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리용대학에서 한국어 교양 과정을 마친 학생은 파리에서 시험 없이 바로 학사 과정에 등록할 수 있고, 동양어 대학에서 교양 과정을 마치고 7대학의 3학년에, 또는 그 반대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국가 학위 외에 대학 학위로 학교에 따라서 이수 과정(Brevet)이 있는 학교도 있다.

대학의 등록금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연 750 프랑(150 달러) 정도다. 학생들 중 부모의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저렴한 사회 보장 병 보험, 대학 기숙사, 대학 식당, 다른 대학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 등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 그러나 1학년에 등록한 학생의 1/3 정도는 자연 도태되어 스스로 학업을 그만 두며, 또 상당수는 학년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수는 첫해의 등록생 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2학년부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안정되지만, 학년이 오름에 따라 조금씩 적어져 피라미드를 이루는 것이 프랑스 전대학, 전분야의 공통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학위의 동등-균일 원칙과 법정 수업일수 및 시간 수의 테두리 내에서 각 학교마다 독자적으로 교과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내용면에서는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1. 파리 7 대학

* 1~3 학년(DEUG 및 Licence)까지는, <한국어-문화(Langue et civilisation étrangères-LCE-de coréen)>와 <실용 한국어-영어-행정-경제-사회(Langue étrangère appliquée-LEA-coréen/anglais/administration-économie-société)>의 두 종류가 있음. 다음 각 과목의 주당 강의 시간은 1.5 시간임.

한국어 LCE : 각 학년에 언어 및 문화 10 과목 : 한국어 3, 한국 문화 1, 타 동양어 1, 동양 문화 0.5, 불어 교육학 0.5, 대학의 他 인문 과학 분야에서 자유 선택 4.

LEA : 각 학년에 언어 및 문화 11 과목 : 한국어 3, 한국 문화 1, 타 동양어 1, 동양 문화 0.5, 불어 교육학 0.5(여기까지는 LCE와 공통임.) 외에 영어 3, 행정-경제-사회 2.5.

강의 내용은 언어에 한국어 강독, 구문 연습, 회화, 한자, 언어학(문법), 서지학이 있고, 시사 한국어 ; 문화에 지리, 역사, 예술, 풍속, 경제, 정치, 한국어 텍스트를 통한 한국사, 한국의 사회-경제-정치 문제 강독 등이 있다.

* 4 학년(Maîtrise) : 10 과목이며, 2 과목에 해당하는 세미나는 한문으로 된 한국 고전 독해이며, 논문이 8 과목에 해당함.

* 박사 과정 : 이 과정의 첫해를 DEA(Diplôme d'Etudes Approfondies)라 하며, 3개의 세미나를 들어야 함 : 1) 한국 고전과 고고학 관계 자료(이육), 2) 한국사 및 문헌학(다니엘 부셰), 3) 일본학 또는 중국학 세미나 중 하나이며, 이 과정을 수료한 다음 대개 4~5년 간 박사 논문을 준비함.

2. 동양어 대학

교과 과정이 대학(Université)과는 약간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 대학에서는 DEUG 를 2년에 이수하는 반면 동양어 대학에서는 DEUG 에 해당하는 것을 2년 내지 3년에 걸쳐 이수하며, 대개는 3년에 마침. 각 과목당 주 강의 시간은 1.5 시간임.

* 1~3 학년 (DEUG 과정)

—한국어(단일 언어) 주전공 학위(Diplôme unilingue de l'INALCO) : 2~3년 간 20 과목 : 언어 12, 문화 4, 자유 선택 4.

—주전공-부전공(2개 언어) 학위(Diplôme bilingue avec majeure-minore de l'INALCO) : 2~3년이며, 20 과목 : 한국어가 주전공인 경우 한국어 9, 부전공 언어 5, 한국 문화 2, 자유 선택 4.

—한국어-문화 이수 과정(Certificat de langue et civilisation coréennes) : 2년 간 10 과목 : 언어 8, 문화 2.

강의 내용은 언어에 1~2학년은 한국어의 언어 구조(문법), 문장 분석과 번역, 작문, 회화이며, 3학년은 문체론, 어의론, 문장론, 표현 기술이며; 문화는 1~3학년에 한국사, 일반 언어학 입문, 한국 및 일본 지리를 나누어 다룸.

* 대학의 제 2주기 첫째(3학년, 학사)에 해당하는 것을 <고등 학위(Diplôme supérieur de l'INALCO, 4학년)>라 하여 언어 4, 문화 2, 자유 선택 4 등 10 과목을 이수하며, 강의 내용은 한국어는 언어학, 한국어 古語이고 문화는 한국 현대 문학, 고전 문학, 문화, 종교, 현대사임.

* 석사(5학년) 과정은 <실용 연구 과정 학위> (DREA, Diplôme de recherche et d'études appliquées)라 하여 8 과목에 해당하는 논문과 세미나 2 과목으로 구성되며, 석사를 마친 학생은 한국학으로 박사 학위를 준비할 수 있음.

그 밖에 1986년부터 동 학교 부설 <국제 교류 연구소>에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어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어과 4학년 수준의 한국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3. 리용 3대학

현재로서는 한국어 DEUG (1~2학년) (LVE de coréen) 과정뿐임 : 각 학년에 전공 4 과목에 강의 시간은 모두 주 10 시간 : 1) (한국어) 언어 체계

(문법) 강의 2시간과 연습 1시간, 한국 문화 강의(지리, 역사, 예술, 종교, 한국사의 주요 연대, 경제, 문학사 개요를 2년에 나누어) 2시간과 연습 1시간, 한국어 독해 2시간, 번역(불어를 한국어로) 2시간인데, 언어 체계 연습과 문화 연습 시간을 합쳐 모아 1시간은 시청각 교실에서 듣고 반복하는 연습, 한 시간은 한자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전공 과목 외에 교양 과목 4개(계 주 6시간)를 수강해야 하는데, 이는 외국어 대학, 철학 대학, 문과 대학의 전학생에 공통이다.

국가 학위인 DEUG 외에 대학 학위인 <한국어-문화 이수 과정(Brevet de langue et civilisation coréenne)>이 있어, 위 교양 과목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과, 일반인으로서 <<成人을 위한>> 계속 교육원)에 등록하여 외국어만 배우고자 하는 수강자가 같이 이수하며, 강의는 오후 5시 또는 6시에서 8시 사이이며, 1~2학년은 각 학년에 한국어 2시간, 3학년은 한국어 2시간과 문화 1시간이다.

해외의 한국 학자들이 대개 다 비슷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교수 수의 부족, 까다로운 강사 채용 규정 등의 행정상의 이유도 있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위와 같은 대학교과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흔히 자신의 원래 전공과는 거리가 먼 과목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역사를 전공하고도 말을 가르쳐야 하며, 언어학을 전공하고도 문화 강의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9. 입학생과 졸업생

학생이 어떤 외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함에는 그 말을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적 배경, 정치-경제-과학-기술력, 즉 국력이 이를 가름한다. 중국은 국토의 규모로 보면 하나의 대륙으로 한반도의 45배, 인구는 20배이며 세계 4대 문화 중 하나의 발상지이며 동양 문화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은 동양 문화권 내에서 독자적이고도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은 세계 제 2의 경제-기술 대국으로, 국민 총생산은 한국의 15배에 달한다. 한반도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단은 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그야말로 경이로운 공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까지 왔으나, 서구인의 입장에서, 어느 모로 보나 그 비중이 중국과 일본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힘을 배경으로, 중국어와 일본어는 프랑스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대학교에서 이 두 말을 배우는 학생 수도 대단히 많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수도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비추어 상당히 증가했다.

그렇지만 한국어는 아직도 히브리어나 현대 그리스어처럼 ‘작은 언어(petite langue)’ 또는 ‘희귀 언어(langue rare)’의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프랑스 학생으로 한국어를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간단히 대답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생이 ‘우연히’ 택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희귀한 언어에 대한 호기심,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대한 동경, 다른 동양어를 배우다가, 한국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한국인 친구의 영향을 받아’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한국어를 택하여 공부하는 학생(coréanisants) 중에는 그것만 하는 학생도 있으나,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정치-외교 등 타분야를 겸하여 하는 경우도 상당수 된다.

매년 프랑스 각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 6명(프랑스 전체)이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1개월 반 기간의 하계 어학연수에 참가하며(여비만 자기 부담), 또 극소수이긴 해도 간간히 장학생으로 한국에 가거나, 박사 준비 과정(DEA)을 마친 학생은 한국 대학의 불어 전임 강사로 가서, 현지에서 한국어를 연마하며, 자신의 한국학 관계 전공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할 기회도 가진다.

졸업생 가운데는 외교관, 동양학 교수-연구원, 언론인, 번역가, 번역사, 통역, 동양과 거래가 있는 기업, 상사, 은행의 간부 또는 엔지니어로 진출한 사람도 있다.

* * *

프랑스에서의 한국어-문화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쪽에서 볼 때는 한국적인 것의 프랑스에의 전파가 되겠지만, 프랑스 쪽에서 본다면 한국을 좀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당장의 필요성 외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한국적인 것의 수용으로 프랑스 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요(豊饒)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 재

여러 대학의 각종 어학 강의에는 대부분 강의 담당자가 자기 나름의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강의에 기본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쓰이는 교재와 참고서로서 불어로 된 서적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서적을 들면 대강 다음과 같다.

1) 불어로 된 교재 또는 참고서

—Centre d'Etudes Coréennes du Collège de France: *Etudes linguistiques*, Cahiers d'Etudes Coréennes, No. 4, 1986, 215p.

—COYAUD Maurice et LI Jin-Mieung (Yi Chin-myông): *Initiation au coréen*, 2e édition corrigée et augmentée, Paris, P.A.F. (Pour l'Analyse du Folklore), 1990, 225p.

—DUPONT René et MILLOT Joseph: *Grammaire coréenne*, nouvelle édition, Paris, Le Léopard d'or, 1984, 405p.

—FABRE André: *Textes coréens faciles*, Paris, POF, 1975, épuisé.

—HONG Chai-Song(Hong Chae-sông): *Syntaxe des verbes de mouvement en coréen contemporain*,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vol.12, Amsterdam et Philadelphia John Benjamins B.V., 1985, 309p.

—LI Jin-Mieung(Yi Chin-myông): *Le coréen pratique*, Paris, P.A.F., 1987, 242p.

—LI Jin-Mieung(Yi Chin-myông): *Grammaire du coréen*, T. 1: alphabet coréen *hangûl*, phonétique, syntaxe, mots variables(verbes d'action, verbes de qualité et d'état), suffixes fonctionnels, Paris, P.A.F., 1985, 350p.; T. 2: Les substantifs, les déterminants, les mots, le coréen standard, 430p. à paraître en 1990, Paris, P.A.F.

—LI Ogg(Yi Ok), KIM Suk-deuk(Kim Sôk-tûk), HONG Chai-Song(Hong Chae-sông): *Initiation à la langue coréenne*, Séoul, Kyobo Book Centre Co., 1985, 247p.

—LUCAS Alain: *Linguistique coréenne: bibliographie(1960~85)*, *Hanguk ôhak nonjo mongnok*, Mémoires du Centre d'Etudes Coréennes, No. 5, 1987, 234p.

—MALHERBE Michel, TELLIER Olivier, CHOI Jung-Hwa(Choe Chông-hwa): *Parlons coréen*, Paris, L'Harmattan, 1986, 253p.

2)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교재와 참고서

—GRANT Bruce K.: *A guide to Korean characters*, Seoul, Hollym International Corps, 367p.

—Lukoff Fred: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2 vol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vol. xxx+487p.; vol. 2, xix+300p.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국어〉, 1. 205p., 2. 260p., 서울, 명지출판사, 1937.

—동아출판사 : 新活用玉篇, 서울, 1989, 576p.

—각종 불한, 한불, 한영, 영한 사전 및 (한)국어 사전.

참 고 문 헌

—AKSE(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 *AKSE Newsletter*, No. 1~14, 1978~1990.

—Bouchez, Daniel : 'Cinquante ans d'orientalisme en France (1922~1972), les études coréennes' (부세, 다니엘 : '프랑스의 동양학 50년(1922~72), 한국학'), Paris, *Journal asiatique*, CCLXI, 1973, pp.247~253.

—Bouchez Daniel : 'Un défricheur méconnu des études extrême-orientales, Maurice Courant(1865~1935)' (부세, 다니엘 :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학의 개척자, 모리스 쿠랑(1865~1935)'), Paris, *Journal asiatique*, CCLXXI(1983), pp.43~150.

—Li, Jin-mieung(Yi Chin-myǒng) : '30 ans d'études coréennes en France, 1956~1986: Institution, équipe, organisation des études' (이진명 : '프랑스의 한국학 30년, 1956~1986 : 제도, 교육-연구진, 조직'), Paris, *Culture coréenne*, revue publiée par le Centre culturel coréen, No.13, Octobre 1986, pp.20~37.

—Guillemoz, Alexandre : 'Korean studies in Western Europe and the institutions involved', Séoul, *Korea Journal*, No.29~32, pp.15~36.

—Orange, Marc : 'Les études coréennes en France' (오랑주, 마르크 : '프랑스의 한국학'), Séoul, *Revue de Corée*, vol.2~4, 1970-hiver, pp.36~38. Commission coréenne pour l'UNESCO.

—Prost, Martine : 'L'enseignement en France et aux Français' (프로스트, 마르틴 : '프랑스에서의 프랑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Séoul, *Revue de Corée*, No. 83, 1989-hiver, pp.18~42, Commission coréenne pour l'UNESCO.

—이진명 : '프랑스 안의 한국 문화', (프랑스 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프랑스대학교 교과 과정

